

宗門의 現場

京畿·坡州郡 汶山邑 仙遊里 郡事公派 門中編

江原道淮陽鎭 金佛靈에 根源을 두고 二百里를 흘러내려 漢江과 合流, 西海로 빠지는 臨津江의 마지막 浦口인 汶山邑은 三〇年前만 하더라도 臨津面 汶山里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이 한 浦口의 마을 汶山이 急速度로 發展하기 始作한 것은 南·北間에 休戰協定이 成立되고 板門店에 兩側의 會談場所가 決定되고부터이다.

서울 佛光洞에서 約三〇KM의 거리인 汶山까지는 統一路로 이어지고, 約八KM 地點에 있는 板門店을 往來하는 車輛은 이곳을 거치고 臨津閣은 2/3KM에 不過하다.

이 坡州는 漢陽과 開城의 中間地點으로서 兩朝를 통치해 많은 文人達士와 高官大爵이 輩出된 곳이다.

특히 高麗와 李朝를 通해서 性理學으로 有名한 吉昌府院君 權 近은 다음과 같은 詩로서 이 地方을 노래하였다.

兩都中宿處 三道會來途 ※ 開城과 漢陽의 中間에서 留宿하는 곳은 京畿·黃海·平安道の 사람이 모이는 길이다.

또 李朝 開國功臣으로 領議政을 지낸 宜寧府院君 南 在는 이렇게 말했다.

小郡經營要路中 新京西畔舊京東 ※ 작은 고을 官衙를 요긴한 길목에다 지었으니, 새 서울의 서쪽이요, 옛 서울의 동편이로다.

이렇게 先賢들은 坡平의 位置를 말하므로서 國步의 要路임을 表顯하였고 지금은 軍事分界線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이다.

汶山邑에서 東으로 二·三KM의 거리에 仙遊里가 있다. 坡州郡 文化院에서 發行한 『과주 문화』라는 책자에는 仙遊里의 由來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배내와 서적개울이 합류, 문

산포구로 흐르는 광장에 개포래 조수물이 오르내려 허허하다 되고 하는 이 지역 건너편인 옥돌내가 흐르는 광포에 철새와 따오기, 갈매기 떼가 장관을 이룬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경으로서 운산맥에서 뻗은 봉우리에 눈시울이 신선히 높고, 갖다 그 주위의 마을이다.

이러한 由來로 仙遊里가 第一景인 곳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傳說을 갖은 仙遊里에 安東金氏가 始居하기는 六百年이 가까운 옛일이었다.

郡事公(諱 七陽)께서는 高麗末에 鄭圃隱·李牧隱 등과 더불어 性理學으로 名聲이 높았으며 벼슬이 遂安郡事에 이르렀으나 李朝가 開國되자 亡國의 恨을 품고 國土의 南端인 康津에서 隱居하였으나, 아들 諱

填과 敬의 兄弟가 이어져 文科에 及第하고 벼슬이 함께 直提學에 이르렀으니, 이때부터 서울에 定着하였으며 填公의 아들 諱는 三老인데, 兎山縣監을 지냈으나 바탕이 清廉하여 貧寒한 家勢에 老母를 모시고 廣潤한 平原과 水産物이 豊富한 이 仙遊里에서 子孫扶植의 功績을 삼은 듯하다.

兎山縣監公이 아들 兄弟를 두었으니 坤은 文科에 及第하여 鐵原府使를 지냈으며, 아우 塢는 長興庫主簿를 지냈고, 府使公의 第二子 允精은 慈山都護府使에 兵馬僉節制使를 兼하므로 家門을 빛냈다. 主簿公의 아들 允剛은 벼슬에 뜻을 가졌으나 死六臣이 處刑되는 光景을 보고 뜻을 고쳐 玉石洞에 숨어 살면서 스스로 玉洞處士라 하고 詩와 書로 마음을 달랬으니 그 事實은 名義錄에 記錄되어 있고, 後孫들이 仙遊里에서 世居한다. 그 後로 이곳의 安東金氏는 學文에 熱中하는 한 諱, 武藝를 鍊磨하여 文科에 應試한 분이 많았으나 主로 地方守令인 府使·郡守·縣監을 지

내고 벼슬을 마치었다. 坡州의 安東金氏로서 文科에 及第한 분은 十二名으로 이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填 一四一四(太宗 14)에 進士, 同年에 文科에 及第해서 藝文館 直提學을 지냈다. ○ 敬 一四一九(太宗 17)에 文科及第, 直提學을 지내고 品階는 嘉善大夫이다. ○ 石精 一四八三(成宗 14)에 文科, 吏曹佐郎을 지냈다. 後孫이 康津에 世居한다. ○ 鼎 一五八八(宣祖 21)에 成均進士가 되고, 一五九九年(宣祖 32)에 文科及第, 成均典籍에 서 여러 벼슬을 거쳐 書狀官으로서 여러 벼슬을 거쳐 戶曹佐郎, 中議大夫, 戶曹判書, 戶曹正郎, 成鏡都事를 지냈다. 公은 學文이 豊富하여 많은 著述을 하였으나 刊行하지 못하고 喪失된 遺稿을 안고 있다. 號가 農圃이다. ○ 炯 農圃公의 아들이다. 一六二四年(仁祖 2)에 成均生員이 되고, 一六三七年(仁祖 15)에 文科及第, 議禁府 都事가 되고, 여러 內外職을 거쳐 淸風郡守가 되었으나 任所에서 病卒하였다. ○ 斗南 淸風郡守公의 曾孫이다 一六八一年(肅宗 7)에 生員이 되고, 一六八七年(文科壯元) 弼善이 되었으며, 安州牧使時에 任所에서 病卒하였다. 公은 三子나 監賑御史로 나갔으며, 四子 尹 璠將軍을 위시해서 李朝에 서는 性理學의 泰斗인 栗谷 李珥·李朝 八文章의 一人인 龜峯 宋翼弼·禮學의 巨星으로 喪禮備要의 大著作을 著述한 沙溪 金長生과 慎獨齋 金集의 父子 같은 先賢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三十幅을 내려 주었다. ○ 光緯 一七四七年(英祖 23)에 文科及第, 司諫院 正言을 지냈다. ○ 永燮 一七四七年(英祖 23)에 文科及第, 司僕寺正을 지냈다. ○ 晦彬 一七五五年(英祖 51)에 文科及第, 벼슬이 司諫院 獻納을 지냈다. ○ 相龍 一八六六年(高宗 3)에 文科及第, 承文院 正言을 지냈다.

이렇게 十二名의 文科及第가 輩出된 家門이라 小科(生員, 進士)는 數十名에 達할 뿐 아니라 仙遊里 中에서도 安東金氏가 世居하는 部落을 讀書洞이라 한 다. 雙栢堂 李世華의 幽宅이 이곳에 定해진후 肅宗大王이 다년간 일이 있었는 데 그후로 住民의 向學心이 더욱 높아져 書堂을 建立하고 學文에 專念해서 많은 선비가 輩出했다는 연유로 讀書堂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雙栢堂은 肅宗朝 己巳換局西人으로서 獻納公(諱 斗南) 및 暢谷 吳斗寅·定齋 朴泰輔 등과 같이 仁顯王后의 廢妃를 反對하는 上疏를 하였다가 流配되었던 사람이다. 坡州는 兩京의 中間에서 王化를 입은 곳이라 文衡將相과 名人達士가 많이 輩出된 곳이며, 高麗朝의 武臣인 文肅公·尹 璠將軍을 위시해서 李朝에 서는 性理學의 泰斗인 栗谷 李珥·李朝 八文章의 一人인 龜峯 宋翼弼·禮學의 巨星으로 喪禮備要의 大著作을 著述한 沙溪 金長生과 慎獨齋 金集의 父子 같은 先賢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따라서 仙遊里의 安東金氏에 서도 文翰世家로서 大文章家가 많았다는 事實은 十二名이 輩出된 文科及第와 數十을 헤아리는 生員 進士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歲月이 흐르며 따라 移動도 많았으니 京畿道의 華城과 龍仁·平澤를 비롯해서 全羅道의 井邑 및 서울의 禾谷洞

을 비롯해서 많은 地方에 散居하는 郡事公派 門中은 모두 이 仙遊里의 支派가 된다. 그러나 歲月은 바뀌어서 臨津江에 隣接한 休戰線을 가가이 두고 休戰會談場으로 一朝에 有名해진 板門店을 通過하는 統一路의 길목인 汶山이 한 개의 里로서 邑으로 昇格할만치 人口動態에 異變이 생기는 同時에 仙遊里 또한 人口의 增加와 商業의 發達은 自然現狀이라 하겠지만, 이에 比例하여 世居한 原住民의 數는 顯著하게 減少되었으니 急速度로 發展하는 都市産業이 農村의 靑壯年을 誘致하는 現實은 이 地方도 例外는 아니다. 더욱이 서울과는 三角山이 바라보이는 距離로서 仙遊里에 살고 있는 安東金氏는 一五·一六戶에 不過하고 廣灘까지 合해 도 三十世帶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郡事公派의 宗系라는 矜持속에 살면서 옛터를 지키고 있는 仙遊里와 廣灘의 宗親들은 相互間에 緊密한 紐帶를 갖고 親睦을 圖謀하며 全國의 派親과도 끊임없는 連絡을 취하고 있다.

또 現代의 著名人士로는 判事를 지내고 現在 仁川에서 辯護士로 있는 勝默氏와 世宗大學校 教授 仁默氏, 서울大學校 教授 義洙氏 그리고 美國에서 病院을 經營하는 澤洙氏 등이 있으며 郡事公派 宗會長인 在錫氏와 先祖의 遺業에 대한 文蹟研究에 沒念하는 醫會 氏가 宗事를 主管한다. (元榮記)

翼元公時享日
十一月十三日 陰十月
初五日(日曜日)로 定行

贊助人名單

- 拾萬圓 按廉使公派 斗會 (독산동)
- 五萬五千圓 翼元公派 正源 (議政府)
- 五萬圓 忠南瑞山宗親會 植 (永登浦洞)
- 參萬圓 翼元公派 國植 (上道洞)
- 參萬圓 按廉使公派 재진 (華城)
- 參萬圓 提學公派 弘植 (華城)
- 參萬圓 翼元公派 英植 (華城)
- 參萬圓 翼元公派 昌成 (安山)
- 貳萬圓 按廉使公派 相興 (釜山)
- 貳萬圓 書雲觀正公派 思興 (淸潭洞)
- 貳萬圓 翼元公派 鶴興 (方背洞)
- 貳萬圓 按廉使公派 良興 (微慶洞)
- 貳萬圓 翼元公派 天會 (江陵)
- 貳萬圓 翼元公派 泰晚 (項島)
- 貳萬圓 翼元公派 玉會 (珍島)
- 壹萬五千圓 大護軍公派 相宜 (山清)
- 壹萬圓 提學公派 相宜 (山清)
- 壹萬圓 按廉使公派 相宜 (山清)
- 壹萬圓 翼元公派 湧錫 (仁川)
- 壹萬圓 翼元公派 泰信 (木浦)
- 壹萬圓 按廉使公派 泰俊 (大田)
- 壹萬圓 翼元公派 平基 (松炭)
- 壹萬圓 按廉使公派 在愚 (紫陽洞)
- 壹萬圓 翼元公派 在愚 (方背洞)
- 壹萬圓 大司成公派 在吉 (慶州)
- 壹萬圓 典書公派 大昌 (大邱)
- 壹萬圓 典書公派 昌會 (大邱)
- 壹萬圓 典書公派 泰會 (大邱)
- 壹萬圓 大司成公派 上會 (沃川)
- 壹萬圓 提學公派 哲會 (沃川)
- 壹萬圓 按廉使公派 在成 (金浦)
- 壹萬圓 郡事公派 在成 (金浦)
- 壹萬圓 典書公派 奉珉 (蔚山)
- 壹萬圓 提學公派 在珉 (蔚山)
- 壹萬圓 大護軍公派 東默 (奉天)
- 壹萬圓 大護軍公派 成默 (奉天)
- 壹萬圓 書雲觀正公派 寬浩 (方背洞)
- 壹萬圓 按廉使公派 聲會 (노량진)
- 壹萬圓 按廉使公派 聲會 (淸州)

(次面に 계속)

日本땅에 韓國씨름의 像 심음 僑胞事業家 在鶴宗親의 美學 88서울올림픽基金 8億원 捐出

1987年 10월에 日本에서 第一의 工業都市 오사카(大阪)의 府立體育館에서 韓國固有의 民俗씨름이 1萬餘名의 觀客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競技를 펼쳐 보는데 하여금 驚異의 感嘆을 禁치 못하게 하였다.

日本の 各 TV와 新聞은 「2千年의 歷史가 숨쉬는 韓國의 씨름」이라는 題下에 「박진감 넘치는 妙技」라고 우리 壯士들의 神計 鬼才같은 妙技를 極口 讚揚했다.

이러한 韓國의 壯士씨름大會가 日本의 大都市며 關西스모(相撲)의 本山인 오사카에서 開催됨으로 해서 單調로운 힘의 對決인 日本 스모만이 눈에 익은 日本의 体育人으로 하여금 韓國을 再認識하는 契機가 되었고, 僑胞社會에서는 母國에 대한 矜持를 더욱 갖게된 그 成果는 자못 컸었다.

이러한 大會를 日本땅에 誘致하기까지에는 在日僑胞로서 金山産業株式會社 會長인 在鶴宗親의 끈질긴 努力과 莫大한 資金의 投入이 作用 되었다는 事實은 當時의 新聞에서 널리 紹介한바 있었다.

「한국씨름이 史上 처음으로 日本에 紹介되고 그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在鶴宗親은 그 功勞를 14年前에 作故한 先親에게 돌리고 있다.

그의 父親 良默 公은 翼元公의 18代 孫으로 慶南咸陽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 출생하여 弱冠에 玄海灘을 건넜다. 公은 수많은 在日同胞 1世들과 마찬가지로 單薄한 體格과 植民地 民族이란 差別待遇는 건디기 어

려운 나날의 連續이었으나 儒風에 濡化된 良默 公은 勤勉과 良心만을 生活의 信條로 삼고 日本人과는 精神的 鬭爭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在鶴宗親은 오히려 不遇한 환경 속에서 成長하게 되었고, 不利한 戰爭을 遂行하기 위한 物價統制로 生必需品의 缺乏은 勿論 食糧의 不足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어린 時節을 지냈으며, 아버지 가 創設한 오사카 변두리의 韓國學校에 入學하였다.

엄격한 선비 기질을 지닌 아버지는 學校에서는 勿論, 家庭에서까지 韓國말 外에는 使用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日本社會에서 자라난 모든 僑胞 二世들과는 달리 日本말에 能熟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가 運營하는 韓國學校는 “文校政策에 違背된다”는 理由로 廢校되고, 이일로 인해서 아버지 良默 氏는 獄苦를 치루는 悲運을 겪게 되었다.

이때부터 12歲의 在鶴宗親은 正規 國民學校에 비로소 入學을 하였으나 成績은 最下位를 면할 길이 없을뿐 아니라 日本語에 능숙하지 못한 탓으로 같은 班 아이들의 嘲笑를 받게 되고 先生까지도 不正確한 發音을 흉내내어 兒童들로 하여금 놀림을 助長하는 結果가 되었으며, 때로는 分개심을 이기지 못하여 日本 아이들을 실컷 두들겨 패주는 일이 있었고 날이 갈수록 이런 일이 잦아지면

서 不良學生으로 指目을 받게 되어 校內에서는 물론, 마을에서까지 問題兒의 取扱을 당하게 되었다.

學友의 따돌림과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15세 되던 해, 家出을 하여 머리를 길러서 기름을 바르고 年上의 不良輩와 어울려 술, 담배로 享樂을 삼았고, 粗雜한 물건을 속여 팔아 日本 全國을 누비면서 流浪의 生活을 하였다.

또 20代의 초반에는 콜롬비아 社會의 專屬歌手가 되었으나 年中 시골公演에만 出演할 뿐, 出演料는 쥐꼬리만 했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고쳐 먹고 자리를 잡게 되기는 1964年頃으로서 27歲의 한창나이였다.

이렇게 어려운 迂餘曲折 끝에 日本政府로부터 建設會社의 許可를 받아내어 金山工務店이라는 會社를 創設하였는데 지금은 막내동생 在建氏가 맡아 運營한다.

그러나 事業이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다. 日本人의 특마구니에 끼어서 朝鮮人이라는 差別속에서도 아랑곳 없이 有能한 經營으로 熾烈한 競爭을 이겨내니 事業은 日就 月長하여 10年後에는 建設業界에서 제법 頭角을 나타내게 되었던 1973年에 아버지가 別世하게 되고, 2年後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在鶴宗親이 天下壯士씨름大

會를 日本땅에 誘致하는 棼뜻은 아버지의 遺訓을 지키자는 데 있었다.

「우리의 祖國은 韓國이며 자랑스러운 安東金氏의 後孫이다. 우리가 비록 日本 땅에서 살고 있지만 根本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앞으로 너는 韓國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느니라. 在學 宗親은 生前에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愛國心이 생겼고, 우리 나라의 天下壯士씨름大會를 日本땅에 誘致하므로서 僑胞社會에 矜持를 심어 주고 日本으로 하여금 韓國에 대한 關心事를 높이는 큰 일을 成就할 수 있었다.

在鶴宗親은 이보다 앞서 在日同胞 2~3세의 故國訪問團에 全力을 기울였다. 이미 시작된 秋夕省墓團은 1世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自身과 같은 2세들에게 祖國의 像을 보여 주고 싶었다. 朝總聯의 약속같은 방해에도 不拘하고 몸소 先頭에 나서 訪問團을 引導하여 3회에 걸쳐 이들을 引導하므로서 日本國籍을 取得한 2~3세들로 하여금 國籍還元의 契機를 만들었다.

在鶴宗親이 처음으로 씨름을 觀覽하기는 馬山大會와 濟州道大會에서였다.

100Kg이 훨씬 넘는 巨軀들이 맞붙어서 瞬間을 利用해서 억누르고, 뒤집고, 번개같이 몸을 날리는 妙技는 볼수록 變化가 무궁함에 驚愕하였고, 가슴

을 매우는 熱情은 드디어 “우리의 씨름을 日本에 紹介하자”는데 決心을 굳혔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祖國을 위해서 “해불만한 일이라”고 마음먹고 이를 推進하기 위해서 前씨름協會 副會長인 최 창식 씨를 알게 되었고, 고 원준 會長이 새協會會長이 되면서 부터 副會長 이 강환씨와 접촉하게 되었다.

이 강환 副會長과 在鶴宗親은 20年前부터 사귀어 온 의형제와 같은 사이였다는 것도 因緣이라면 큰 因緣이었다.

「日本에서 할 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韓國에서의 준비는 당신들이 해 주시오」.

이렇게 서로가 組織을 짜서 進行하였으나 好事多魔라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때마침 協會의 會長團이 바뀌는 眞痛을 겪어야 했고 體育部의 許可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때문에 在鶴宗親은 9次나 韓·日間을 往來하였고, 6월에 가서 모든 準備를 마무리 지었다.

이 大會에서 무려 1萬枚 以上の 入場券이 豫賣되었고, 特席 1萬5千엔, A席 1萬엔, B席 5千엔의 入場券을 판 總收入은 1億 1千8百27萬엔으로 所要經費를 除하고도 1千萬엔의 純收益을 올려서 韓幣 5千7百90萬원을 體育振興基金으로 寄贈하였다.

在鶴宗親이 우리 體育界에 寄與한 功績은 眞이 아니었다. 88서울올림픽 基金으로 8億원의 巨金을 捐出한 고마운 精誠은 기리 간직될 것이다.

그리고 蔚山 聖南동에 있는 뉴-그랜드 觀光호텔은 在鶴宗親이 國內에서 唯一하게 建立한 事業體이다.

誠實한 人間性의 回復 의서군 점곡면 서변동 都評議公派 昌會

아버지가 生命保險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子息놈이 아버지를 殺害한 後 交通事故로 죽었다고 위장신고했다가 鷓미가 잡혀 유치장으로 갔다는 新聞記事를 본일이 있다. 山비탈에 늘어붙은 밭 다래기와 남의 논 조각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農夫가 남봉꾼 子息의 行悖로 거지가 된 채 그 마을 上農家에 고용살이로 서럽게 늙어가는 모습을 우리들 周邊에서 볼 수 있다. 내가 그동안 마을 儕輩들이나 其他의 모임 자리에서 傳統倫理 等의 내려오는 이야기를 몇번 들려준 기회가 있었는데 周圍의 親友들이 百年前的 書堂 訓長의 말같다고 웃어 넘긴 일이 있었다.

해가 바뀌고 歲月이 흘러도 自然의 이수는 변하지 않아 봄이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每日같이 西山에 지는 해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東嶽에서 솟아 오르고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天理속에 살고있는 人世의 情狀은 어떠한가 百年前이 다르고 十年前이 다르며 現實은 어제가 옛날 같이 急變하고 있다. 늙은 父母任이 기침하기 前에 問安人事드리는 이야기나 出他하였다가 돌아오시는 父母任께 만나

는 자리에서 큰절 올리는 이야기는 ‘오늘날 社會에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人間을 動物과 比較하여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몸가짐이 추하거나 욕심이 많으면 돼지 같은 놈, 미련하여 바보 같으면서도 실속을 잘 차리면 곰같은 놈, 암체질을 혼자 하면서도 事理를 分別하는 것 같고 약삭 빠르며 여우 같은 놈, 言行이 바르지 못하거나 倫綱이 어긋나면 개 같은 놈이라 했고, 여러면으로 人間답지 못한 行動을 함부로 하는 자를 가리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해왔다. 그러나 짐승이라 해도 먹을 것을 뱉기 위해 애비를 죽이거나 남봉으로 湯진한 빛을 갖기 위해 논문을 寫아가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先人들은 한결같이 人間을 가리켜 萬物의 靈長이라고 했다.

權力和 金力을 한손에 쥔 王子로서 答벽을 넘어 苦行의 길을 택한 釋迦나, 首陽山 고사리로 淸

節을 지킨 白夷叔齊를 본받지 않았다면 이 世上風化에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一身榮達의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杜門洞 七十二賢과 마음 한번 고쳐 먹으면 높은 벼슬로 한平生 榮華에 문힐 수 있음에도 先王의 顧命義理를 저버리지 못해 答근질로 죽어간 死六臣도 있었으니 모두가 先人들의 精神世界를 말해주고 있다. 反面에 現實의 倫理는 손과 발이 다 닳도록 答발을 매며 서울 留學을 시켜놓은 子息이 늙은 父母를 奉養하기가 귀찮아서 養老院入口에 버리고 달아난 이야기는 淸昔之感을 實感케 하고 人間은 不可思議한 動物的 存在임에 分明하다.

貴賤이 따로 있다고 말할 하지만 答목숨이 태어난다는 것은 神秘요 태어난 答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人本思想이다. 물과 땅속을 헤집고 사는 答物들, 空中을 날고 사는 答짐승들, 地上의 넓은 空間을 答有하고 萬物의 靈長을

自處하는 人間들, 이 모두가 宇宙의 攝理에 依하여 生滅을 이어가기는 마찬가지다. 生命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요 어디서 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어받은 生命에 感謝하고 眞實하게 살다가 家族과 財產 모든 것 다 버리고 寂然하게 가야한다는 事實은 어길 수 없는 일이다.

언덕배기를 오르는 짐구루마의 뒤를 밀어주는 어린것들, 허리뚱은 할머니의 보따리를 대신 들어주며 길을 案内하는 착한 어린이들, 우물가에 위험하게 앉은 어린이를 보고 황급히 구출하는 어른들을 보아도 孟子의 性善說을 否認할 수 없으리라. 不幸하게 살다가 不幸하게 죽어가는 사람과 富貴와 榮華속에 살다가 豪華롭게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人生의 答없음을 느낄 것이다. 術數와 答부로 얻어낸 答權力이며 背景과 答機로 答을 올리고 얻어낸 答力으로 거리를 活步하는

사람들은 慾望의 불길에 肉身을 태우며 더큰 權力和 金力을 얻기 위하여 허덕이게 되며 하늘을 뚫어도 모자라는 慾望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리게 됨으로 社會는 混亂과 무질서가 亂舞하게 되는 것이다. 自身의 答목숨이 소중함을 참으로 아는 자는 결코 答을 괴롭히거나 答의 答목숨을 노리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은 答식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아파본 사람만이 答康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平凡한 眞理다. 아무리 文明된 社會요 倫理道德觀이 변천된 오늘이라 할지라도 人間은 人間行爲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벗을 수도 없다. 아버지를 答敬하고 兄弟間에 友愛하며 夫婦間에 和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答할일을 誠實하게 해야 한다는 倫理觀을 答고 答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現代人의 倫理觀은 무엇일까. 父母의 答금에 칼질을 하고 答物 때문에 兄弟間에 訴訟하며 사랑때문에 親舊를 속이는 行爲가 現代人의 倫理일까. 이 地球上에 사람이 答답하게 살아보지 못한 땅이 있다면 答邦의 작은 나라 “코리아”라고 “토인비”는 答과했다. 喪失된 人間性의 回復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새로운 道德觀이 答立되는 길이다.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淸州大學 歷史敎育科 졸
- 1986. 8 淸州大學 敎大 史學科 졸
- 現 淸州新禧高等敎科 敎사.

IV. 金方慶 子孫의 社會的 進出

金方慶은 高麗史 列傳에 의하면 3男을 두었고, 二男 金忻에게는 後孫이 없으며 長男과 三男에게서 5名의 孫子가 있었다. 여기서는 金方慶의 아들들과 孫子들을 中心으로 그들의 社會的 進出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長男 金愷과 그 아들

金愷은 官이 副知密直司事에 이르렀으며¹⁴⁵, 부인은 朝靖大夫司宰卿 薛仁儉의 딸¹⁴⁶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金愷의 長男 金承用(~忠肅王 16年 1329)은 23세에 進士試에 합격하고¹⁴⁷ 密直使의 높은 지위에 오르며¹⁴⁸ 두번 元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였으나¹⁴⁹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金愷의 아들중 주목을 끄는 것은 二男 金承澤(~恭愍王 7年 1358)이다. 그에 대한 것에 앞서 당시 高麗 社會에서 전개되고 있던 濬(陽)王 肅와 忠肅·忠惠王 과의 정치적 갈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濬王 肅은 원래 忠烈王의 아들인 江陽公 滋의 아들로서 叔父인 忠宣王의 사랑을 받았었다.¹⁵⁰ 忠宣王이 元 武宗 擁立의 功으로 濬王에 封해져서 高麗王, 濬王, 征東行省丞相의 三職을 겸하게 되었다. 그뒤 高麗王 征東行省丞相의 지위를 아들인 忠肅王에게 傳한 뒤에 濬王의 지위를 조카 肅에게 傳하였다. 그러자 濬王 肅가 高麗王位에 오르려고 忠肅王 및 忠惠王과 對立하면서 元과 高麗에 정치적 책동을 일삼아 커다란 파동이 야기되었다.¹⁵¹ 濬王 肅과 그 일당의 책동은 忠肅王 9年(1322)에 절정에 이르러 忠肅王은 元에 소환당하여(忠肅王 8年 4월~12年 5월) 國王印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이르렀다.¹⁵² 이때 濬王黨 曹頤 등은 元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無賴輩 2천명을 連名하여 忠肅王을 참소케 하였다.¹⁵³ 그뒤 忠肅王 17年(1330)에 忠惠王이 즉위하였으나 다시 2년만에 忠肅王이 復位하였다. 忠肅王이 復位 8年(1339) 昇遐하자 忠惠王이 元에 사람을 보내 復位를 간청할때, 忠惠王의 復位를 방해하기 위하여 曹頤 등은 平壤에 있던 濬王과 모의한 후 王京을 습격하다가 曹頤는 敗誅하였다.¹⁵⁴ 그뒤 11월에 元은 忠惠王을 德려가 刑部에 감금까지 하였으나, 이듬해 3월 석방된뒤 復位하여¹⁵⁵ 4월에 歸國하였다.

이렇게 濬王과 高麗王 사이에 정치적 파동이 전개될 때 金方慶의 子孫은 高麗王(忠惠王)편에 가담하였다. 즉 忠惠王이 曹頤의 亂後 元에 가 있을 때 忠惠王을 侍從한 功으로 金承澤은 2等功臣이 되었으며, 金永曉, 金永煦(金方慶의 三男 金恂의 아들)는 1等 功臣이 되었다.¹⁵⁶ 그리하여 忠烈王 25年(1299)에 있었던 忠烈黨과 忠宣黨의 대립시 金方慶의 二男 金忻이 忠宣黨에 가담하였다. 패한 후 약화된 家門의 세력을¹⁵⁷ 만회하게 되었다. 그뒤 金承澤은 恭愍王 元年(1352) 贊成事가 되어¹⁵⁸ 最高位의 宰相班列에 서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

2. 二男 金忻¹⁵⁹

金方慶의 아들중 가장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였던 사람은 二男 金忻(高宗 38年 1215~忠宣王 元年 1309)이다. 蔭補로 刪定都監判官에 뽑히고 세번 榮轉하여 將軍이 되었다.¹⁶⁰ 아버지를 따라 耽羅의 三別抄를 친 功으로 元宗 14年(1273) 大將軍이 되었고,¹⁶¹ 제 1차 日本 遠征에 아버지를 따라 從軍하여 큰 功을 세웠으나,¹⁶² 韋得儒 등의 金方慶 誣告때 白翎島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뒤 忠烈王 12年(1286) 3월 三司使를 거쳐 8월에는 副知密直司事가 되었고,¹⁶³ 忠烈王 13年에 同判密直司事가 되었다.¹⁶⁴ 그뒤 金忻은 元 太祖동생 合赤溫의 5세孫 哈丹이 乃顔과 함께 反하여 忠烈王 16年(1290)부터 17年(1291)까지 高麗에 자주 침입해 왔을때 특별한 功으로 判密直司事가 되었으며,¹⁶⁵ 그 이듬해 判三司事가 되고¹⁶⁶ 이어 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

그러나 金忻은 忠烈王과 忠宣王 父子간의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때 忠宣王편에 가담하여 金方慶 家門에 일시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忠烈王은 24年(1298) 1월에 世子에게 讓位함에 忠宣王이 즉위하였다. 忠宣王은 즉위한 뒤 당시 高麗社會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과감한 革新 政治를 도모하였다.¹⁶⁸ 그런데 忠宣王은 즉위 7개월만에 元의 간섭으로 退位하고 忠烈王이 復位하였다.¹⁶⁹ 그러나 忠烈王과 忠宣王을 둘러싼 臣僚들의 黨與 사이에서는 알력이 계속되었다. 이때 일어난 것이 韓希愈誣告 사건이었다. 즉 韓希愈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印候 金忻 등이 韓希愈, 李英

柱 등을 잡아 귀양가게 하였다.¹⁷⁰ 그러나 忠烈王은 4월에 韓希愈 등을 소환하고 印候 金忻 등을 파면하였으니,¹⁷¹ 이것은 印候 金忻 등의 忠宣黨과 韓希愈, 李英柱 등의 忠烈黨 사이 알력의 표면화였으며, 王位를 빼앗긴 忠宣王의 復位를 위한 그 黨의 조작이었다.¹⁷² 이때 金忻은 忠宣黨에 가담하여 파면까지 당하였으며, 이듬해 忠烈王 26年에 金方慶이 죽었을 때 執權者들이 그를 미워하여 禮葬까지 막았다는 것은¹⁷³ 金忻이 忠宣黨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忠烈王은 31年(1305) 11월 元에 가서 33年(1307) 귀국할 때까지 1년 반동안 元에 있었다. 그리하여 元에 있던 前王 忠宣王과 不和軋轢이 격심해져서 元에 있던 高麗人들도 두파로 갈라져 갖은 음모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元武宗이 즉위함에 武宗을 擁立한 功으로 승리는 忠宣王에게 돌아갔으니 忠烈王은 모든 실권을 잃고서 4월에 귀국하였다. 武宗이 즉위한 것은 5월이지만 그 以前 이미 형세가 武宗편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따라 忠宣王과 父王 사이의 세력 다툼에도 그 영향은 즉각 나타났으니¹⁷⁴, 高麗史 世家 卷32 忠烈王 33年 3월 辛卯條에 「前王 遣同知密直司事 金文衍……夜入巡軍府 宣批判……」이라 하고 80여명의 관직 임명을 선포하였다. 이때 忠烈王 25年에 파면되었던 金忻도 咨議都僉議司事로 복직되어 정치적 세력을 만회하였다. 또 忠烈王은 34年(1308) 7월 昇遐하고 忠宣王이 다시 即位함에 即位敎書에¹⁷⁵

- 註 145)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146) 金承用墓誌, 許典植編著 〈韓國金石文〉 中世 下·亞細亞文化社刊
- 註 147) 〈上揭書〉
- 註 148)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149) 〈高麗史〉世家 卷35 忠肅王10年 11月 甲戌條, 忠肅王 15年 12月 壬寅條. 그러나 元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였으니 〈高麗史〉世家 卷35 忠肅王16年 3月條에 「三月金承用還自元道卒」이라 하였다.
- 註 150) 〈上揭書〉列傳4, 宗室2, 忠烈王3子 肅條
- 註 151) 高炳翊 「歷代征東行省의 研究(下)」 〈歷史學報〉 19집 P.144~154
- 註 152)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 9年 3月條 「及王入朝帝怒詰責王 收奪 國王印……」
- 註 153) 〈上揭書〉 卷24 忠肅王 11年 夏 4月條
- 註 154) 〈上揭書〉 卷25 忠肅王後 8年 8月條
- 註 155) 〈高麗史〉世家 卷36 忠惠王 後 元年 3月 甲子條
- 註 156) 〈上揭書〉 卷36 忠惠王 後 3年 6月 庚子
- 註 157) 다음章 2男 金忻에서 詳述
- 註 158) 〈上揭書〉 卷38 恭愍王 元年 冬 10月 丙午
그뒤 金承澤은 〈高麗史節要〉 卷27 恭愍王 7年 秋 7月條에 「中書平章事致仕 金承澤卒」이라 하였다.
- 註 159) 綬라고도 함.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에 「…號三翼軍 忻即綬也」
- 註 160)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161) 〈高麗史節要〉 卷19 元宗14年 4月條에 「金方慶遺其子綬」……等 來告捷 王拜綬爲大將軍」
- 註 162) 〈上揭書〉 卷19 元宗 15年 冬 10月條 〈高麗史〉 金方慶傳에는 그 功으로 晋州 牧이 되었다함.
- 註 163) 〈高麗史〉 世家 卷30 忠烈王 12年 3月 壬午條 및 8月 戊戌條
- 註 164) 〈上揭書〉 世家 卷30 忠烈王 13年 12月 丙寅條
- 註 165) 〈上揭書〉 世家 卷30 忠烈王 17年 9月 乙未條
- 註 166) 〈上揭書〉 世家 卷30 忠烈王 18年 6月 辛亥條
- 註 167) 〈上揭書〉 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168)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歷史學報〉 52집
- 註 169) 高炳翊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上)」 〈歷史學報〉 14집 P.63
- 註 170) 〈高麗史節要〉 卷22 忠烈王 25年 正月 2月條
- 註 171) 〈上揭書〉 同年 4月條
- 註 172) 高炳翊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上)」 〈歷史學報〉 14집 P.64
- 註 173)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典書公派

金弘植

華城郡 東灘面 中里 222

按廉使公派

金在鎮

서울 銅雀區 上道 1洞 682

典書公派
서울 中區 墨井洞
목정아파트 四〇三
金大會

翼元公派
서울 瑞草區 方背洞 九八八一
金東會

三別抄

(12)

전호에서 계속

한편으로 동경(東京)에서 김 방경과 헤어진 원종(元宗)은 정월 그믐에 연경에 도착하였고 세조로부터 알현(謁見)의 허락을 받기는 2월 초 2일이었

다. 이때 원종은 고려의 국왕다운 위의를 갖춘 고전에 북으로 단장을 하였다. 소매가 넓은 홍라포(紅羅袍)에 서리(犀鞋)를 신고, 상훈(象笏)을 바쳐 잠은 원종의 앞뒤에는 수명의 시종(侍從)들이 허리를 굽히고 따랐다.

세조의 알현은 태극전(太極殿)에서 이루어졌고, 의식은 고려의 전통적인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할 때, 세조는 매우 만족한 생각으로 황제다운 온유한 품채로 맞이하였다.

그 옛날 하남(河南)의 진중에서 만났을 때는 몽고의 장군인 후비라이와 항표(降表)를 바치는 고려의 태자(太子)였으나 이제는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끝에 흰색이 서리는 대원제국의 황제와 이미 신숙(臣屬)의 나라 고려의 국왕과의 대면이었다. 그리고 그 인자한 모습 속에는 금방이라도 고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부드러운 입술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원한(怨恨)이 나울 것만 같았다.

세조는 임연(林衍)의 행위에 대해서 몇마디 물었으나,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표정이 있었고, 원종의 복위에도 당연하다'는 뜻이 숙연(肅然)한 태도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는 예와 같은 미소만 흐르고 있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은 사양 말고 증서성의 상서로 알

려라」
세조는 이 말만을 남기고 원종의 알현은 끝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원종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울한 사색에 잠겼고, 이 장용도 긴 한숨만 뿜을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멀지 않아 원종의 알현에도 몽가독의 대군단을 고려했던 세조의 저의는 알수 없었다. 이는 분명히 최단과 한신이 귀부(歸附)한 북(北界)과 서해(西海)의 6십 여성을 고려에 다시 돌려주려

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세조의 태도로 보아 어디까지나 고려의 전국토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야망의 눈초리가 뚜렷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렇다면 고려는 이제부터 어떠한 길을 취해야 하나?」 한참동안 말이 없던 이 장용이 비로소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였다.

「전하? 신하가 덕이 없아와 나라의 사정이 오늘에 이르러 개된 신이 천번 죽어도 마땅하오며, 만가지 벌을 받아도 부추하나 지금이 시점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는(論)하며, 이를 비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다만 몽고의 위정자에게는 고려가 스스로 그들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길 밖에 별다른 길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긴다는 성의를 보여 주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라의 사

정(政)이 어떻게 된 이상, 우리가 나라를 건지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출하는 길은 태자로 하여금 공주(公主)에게 청혼을 하는 길이며, 둘째로는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병력(兵)을 충을 청하므로서 그들에게 안도의 감

을 주는 길 밖에 별도의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용은 여기까지 말을 하였으나 한숨에 복단해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다시 말을 하였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고려는 몽고에 대해서 부마(駙馬)의 나라가 되고, 또한 도에 있어서도 몽고의 힘을 빌리게 되면 세조도 우리의 마음 속에 두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오며, 서북면(西北面)의 6십 여성(城)환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考慮)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장용이 이러한 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기대라는 생각이 있었고, 원종은 이 장용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다.

이래서 원종은 즉시 태자(太子)이며, 몽고의 공주(公主)와의 혼인의 대상자인 심(諱)에게 이 장용의 뜻을 전하고 의사를 타진한바 태자 또한 반대

의 의사가 없으므로 증서성의 상서(尙書) 문안(文案)을 작성하였

다. 「지난 기미(二二五九)년, 세자로 있을 때, 처음으로 친 조(親朝)하니 때 마침 폐하께서 등극(登極)하실 때에도 불구하시고 인홀(襟恤)을 받자 왔사오나 갑자기 신신(先臣) 별세의 부음(訃音)을 듣게 되어 두려움과 격정(激憤)이 망극하였는데, 곧 신으로 하여금 반직(潘職)을 계승케 해주셨고, 또 갑자(二二六四)년 친조 때도 미신(微臣)을 사랑하심이 전과 같으시어 신의 감명은 형언이 어려웠고,

이제 신은 장차 권신을 제멸(除滅)하려고 군사를 청하였

아오며, 한국하여서는 강화의 백성을 개경으로 복도(復都)시키려 하였으나 이제 최

탄 등은 마땅히 군사를 버리고 본래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오며, 제후(諸侯)와 백성들은 그 땅을 지키고 힘써

조종(朝宗)을 위해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오니

우리 백성 된 자가 어찌 다른 취미를 가지리오! 하오니 나라를 돌리 주시도록 조처하옵소서」



꽃

신속한 배달
저렴한 가격
宗親을 위한 特別奉仕

香 田 園 芸

代表 金 在 均

주소 :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 783-3166 ~ 7 (自) 552-5327